

# 나는 이렇게 일했다

## —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아동병원에서

— 임 혜 자

<경희의료원 기획실>

「사우디 아라비아」각 베스콤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에게 未知의 나라라는 베일을 벗어가고 있고 오아시스와 낙타행렬의 유목민이 연상되는 不毛의 땅이 아니라 사막에서 생긋는 유전과 그 검은 오일달려의 위력. 우리나라의 中東붐이 먼저 생각키우는 곳이 되었다.

그나라 首都 리야드의 아동병원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하였다. 기억을 더듬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느낌이 새롭다.

1976年 1월 20일.

그 해 겨울들어 기온이 가장 내려갔다는 큼직한 기사밑에 한국간호원 17명이 처음으로 사우디 아라비아로 떠난다는 기사도 조그맣게 실린 조간신문을 보며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새벽의 찬 겨울공기와 공항의 수선스러움속에서 비자를 손에 쥐고 밤늦도록 쟁쟁 트렁크가 막상 물러를 따라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니 가슴이 철렁내려 앉았다. 세계 지도상에서도 한참이나 먼 나라인 사우디 아라비아.

문득 예상할 수 없는 그곳의 나날들이 불안해지고 풍문으로 들은 나쁜 얘기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후회스런 기분도 들었다. 주위를 돌아보니 국립의료원서 같이 근무하던 닳익은 동료들이어서 불안한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미 닳아온 새로운 생활을 맞은 준비를 해야했다. 수도 리야드에 닿은 것은 5일 뒤였다.

젯다市로 3명이 떠나고 리야드에 14명이 남았다. 리야드의 국립 아동병원에 6명, 중앙병원에 나머지 8명이 배치 되었다(Central Hospital에는 현재 한국간호원 160명이 근무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던 아동병원은 250베드의 규모인데 실제 환자수는 300명이 넘을 때도 있으며 국립병원은 의료비 전액이 무료인데다가 칩상이 다. 찻다고 환자를 돌려보내는 법이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환자가 밀려올 때는 침대 하나에 애기를 둘 셋씩이나 눕혀두는게 예사로왔다. 병동의 불결함과 지저분한 간호원실, 의료진들의 무사태평함이 항상 마음에 걸리고 쉽게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고만고만하게 조그맣고 새까맣게 빛나는 커다란 눈동자의 생김새에다 한 애가 울면 합창하듯 따라 울어대는 아랍 아기들. 처음에는 한 침대에 틀어 누어 있으면 내눈에는 모두 쌍둥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영국서 간호학을 공부했다는 이집트인 간호과장에게서 간단한 아랍어를 배우며 각각 중환자실, 신생아실, 외과에 배치되어 근무를 시작했다.

막상 근무를 하다보니 우리들이 서울서 들고 간 상황과 차이점이 많았다.

책임감없이 정확한 파악도 전해 주지 않고 異國땅으로 파견한 처사를 원망도 해 보았지만 누구를 원망하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멀리 한국에서 떨어져 왔고, 선발때란 언젠가 고생하기 마

면이라는 각오아래 새로 마음을 다져야 했다.

언어의 장벽이 제일 큰 문제였다. 사우디의 병원들은 모두 외국인들이 근무하여서 영어를 쓰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랍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외국인이란 中東지역의 이집트인이 대부분이고 팔레스타인, 레바논, 파키스탄등 비슷한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사람들이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수는 파키스탄간호원과 감독간호원, 의사를 뿐 제한된 수에 불과했다.

아침 저녁카리지 않고, Good morning, Lim—하는 간호원들이 대다수이니까 의사처방이나 간호기록 모두 아랍어 일색이었다.

일용품도 귀하니까 모두 서울서 준비해가라고 했지만 사우디 슈퍼마켓에 나가보니 눈이 핑핑 돌만큼 생활필수품들이 가득가득 풍부히 놓여있어서 밤새 트렁크에다 붓다뺐다하면서 고심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정확지도 않은 Orientation 준 사람을 불러다 놓고 보이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그리고 유니폼도 보통 입는 원피스가 아니라 판타롬을 입어야 했다. 간우사에 연락하여 비싼 항공표를 물며 새로 맞춰서 입었다.

일을 할려면 우리들을 위해 의사들이 아랍어와 영어로 또 써주어야 했다. 다행이도 모두들 호의로 대해 주어서 날이 갈수록 근무의 긴장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근무하던 초야의과 병동은 항상 바빴다는 기억이 먼저 난다. 응급수술이 연달아 기다리고 새로운 환자를 또 받고 하던일. 食水사정이 나빠서인지 어린 아이들도 담석증이 걸렸다. 5명의 이집트 외과의사와 이집트간호원 6명, 파키스탄간호원 1명, 그리고 한국간호원 1명이 외과의 고정멤버였다. 정기적으로 수술 계획이 있는 날은 파키스탄 간호원「짜이더」와 나는 Evening 근무로 정해졌다. 수술후 처치가 많기 때문에 이집트의사들이면서도 이집트간호원끼리만 근무하는 것을 싫어했다. 「짜이더」와 내가 이집트간호원과 각각 한 팀이 되어 일하다보면 의사들이 그렇게 간호원 Duty Schedule까지 참견해 대는 이유를 금새 알 수가 있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쉽게 결근하고 치자를 하기 때문이다. 병동이 바쁘다는 것 모를리 없었던 데도 연락도 없이 안나오면 결근이고 늦게라도 나오면 지각인 것이지만,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별로 탓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였다. 서로 들 피해를 주고 또 피해를 받기도 한다는. 공범 자심리인지. 처음에는 화도 내고 약속도 받아보았지만 Inshalla(알라神의 뜻이었어)—한마디에는 내편에서 체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결근도 알라神의 뜻으로 했다는데 이방인인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짜이더」와 나는 이집트인들의 무책임한 국민성, 직업의식의 결여에 대해 매일, 흥을 보다가 결국은 불쌍하고 불행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국민이라는 얘기로 결론을 맺곤했다. 내과에는 사우디 아라비아간호원들이 대부분 근무하였지만 그들 역시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외과나 중환자실에 배치된 실습 간호학생들도 Bed making만 겨우 끝내놓고는 내과병동으로 빠져나가 애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다가 말도없이 사라지곤 했다. 까만 면사포로 머리끝부터발 끝까지 감추고는 병원문을 나선다. 그 학생들이 졸업하여 정식간호원이 된다면 얼마나 열심히 환자를 위해 애를 쓸 것인가. 여자들이 사우디라는 사회에서 간호원이 되겠다고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각자대우를 해주어야한다고 하지만 선각자가 그 정도라서야.

어느정도 병원의 분위기에 젖어들고 병동근무의 긴장감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사우디의 더위가 닥아왔다. 5월부터 8월까지 계속되는 熱風속의 긴 여름이다. 근무가 끝나면 아동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리들이 도보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외출이 중앙병원에 근무하는 친구들을 보러가는 일 이었는데 숨이 차게 더워지자 외출도 뜸해질 수 밖에 없었다. 車를 갖고 우리들을 찾아와서 시내구경도 시켜주고 오아시스로 데리고 가던 한 대기업체 사람들의 방문도 뜸해졌다. 아침6시에 시작하여 오후 2시엔 끝나는 Day duty때는 나머지 시간을 기숙사에서 에어컨을 벗하고 지내야

하는 지루함이 큰 고통이었다. 한 낮의 태양이 거리의 모든 풍경을 하얗게 퇴색시키고 기숙사에서 마주보이는 모스크마저 가루가루로 부서질 것 같은 느낌에 빠져 들곤했었다. 냉장고의 문이 열새없이 열리고 냉커피를 너댓잔씩 마셔대다보면 모두들 불면증으로 밤에는 잠못이루며 서울 얘기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한국과 6시간의 時差. 2주 넘어서야 배달되는 편지들이 우리들이 먼 이국땅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했다. 요새는 놀랍게도 5일이면 도착한다고 하지만 사우디의 체신사정은 믿을 수가 없다. 라마단 기간동안 근 한달넘게 우리는 편지 한통도 받을 수 없었다.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아 걸었으니까. 다행히도 우리는 이슬람교도는 아니지만 라마단휴가를 얻어 케르사단에서 지낼 수 있었다.

사막의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니 가슴이 뛰고 저절로 탄성이 흘러나왔다. 기숙사와 병원과 리야드 시내에서 맴돌던 좁은 시야가 탁트이는 듯한 기분이어서 우리는 모두 뜨거운 햇빛이 쬐는 모래사장을 거닐며 즐겨워했다. 우리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생활을 힘들어 하고 귀국할 날짜만을 학수고대하는 이유는 병원근무가 한국보다 험에 겨워서 적응이 안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뚜렷이 느낄 수가 있었다.

행동의 자유가 없고 제한 받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 男子들의 도움없이는 우리들 끼리 시내에 쇼핑도 못가고 영화 한편 보러가기 위해서도 며칠전부터 연락을 해놓고 庫 갖고 오기만 기다려야 하는 등등 生活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었다.

병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일에 묻혀서 잊을 수 있는 자유롭던 기억들이 기숙사에 들어오면 마치 갇힌듯한 기분이 되살아나니까 빨리 1년을 채우고 가야겠다는 일념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친구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슴에 웅어리지던 감정들을 푸른과도의 케르사단에다 다 털어버리고 다시 리야드 아동병원으로 되돌아왔다. 그동안 미운뎃고운뎃이 들

은 이집트간호원들, 사우디 간호원들과 휴가 얘기가 얘기를 하며 재미있게 지냈다. 그녀들은 라마단기간동안 단식을 해서 몸무게가 썩 줄었다고 자랑하며 근무중에도 체중계에 몇번씩 올라가보며 흐뭇해 하는 것을 보니 어느 나라 女子나 女子는 다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리야드에는 국립병원외에도 사립 병원이 여럿 있다. 그중에서 王族과 부유층이 이용하는 King Faisal Hospital과 National Hospital 은 우리나라 어느 병원과 비교도 안될만큼 시설이 잘되어 있고 놀랄만큼 최고급 병원이었다. 아동병원 외과에서는 자주 특수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King Faisal Hospital 으로 이송시키는데 환자를 인계해 주고 엠브런스를 타고 돌아오게 되면 마치 빈민굴의 아이를 부잣집 문간에다 놓고 오는 안스런 기분이 들어 자꾸 되돌아 보게 되었다. 언제 목욕했는지도 모를 만큼 새까맣고 해골처럼마른 에를 궁전같은 병원에 금발의 영국간호원에게 맡기면서 너무도 사우디 사회의 불균형과 부조화가 느껴졌다. 국민들의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하고 그 병원이 병원답지않게 너무나 최고급인 것에 저항도 느꼈다. 강의실만한 크기의 에페베이터는 온통 응단으로 치장하여 마치 하늘나라라도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픈 환자들한테 그런 사치스러움이 무슨 도움을 줄까하고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나는 화가 났었다. 하지만 영국간호원, 미국인, 이집트, 필리핀, 일본간호원들도 그 궁전처럼 더 치장한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한국 간호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만이 좀 섭섭했다.

가로등이 그림 옆서 처참 아름답게 일렬로 늘어선 리야드시내를 지나며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해 생각 해 보곤하였다. 사우디 王族만이 만족하며 살고 있고 일반 平民들은 알라神에 의지하여 체념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사우디 의대생 들은 무척 낙천적이고 자만심이 가득 찼었지만 간호원들은 매사에 소극적이었다.

女子들에게는 폐쇄적인 나라인 때문이라. 1년 간의 근무를 마치고 그들이 배운 송별 파티에서

〈11페이지로 계속〉

상당 해결토록 하고, 오락시설, 의무실, 의사매치등을 의무화하고, 본국 소식을 전하는 영화필름, V.T.R 필름등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하나하나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人力進出國家에 勞務育을 파견하여 勞務管理를 지도 감독케 하고 있다.

## 6. 맺는 말

전술한 바와같이 현재의 海外人力進出政策이 고용 촉진면 보다는 事後管理面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海外人力의 적정한 관리가 國家技術의 評價와 海外工事의 성공률을 높임으로서 결

국은 국가 이익을 크게 하자는데 있다. 이 政策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여기서 간호요원의 海外進出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펜을 놓고자 한다. 이미 서독에의 간호요원 진출은 끝났다고 말한바 있으나 中東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간호원 진출 문호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 등이 한국과의 의료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기 진출한 간호요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역시 앞으로의 人力進出 분야는 현재까지의 일반 진출기능공 진출에서 점차 탈피하여 專門職技術職으로 高級化될 것이므로 간호원등 한국 의료진의 進出은 확대될 것이다.

(22페이지에서 계속)

사우디에서 지낸 우리의 1년이 결코 헛되지 보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이 모두 사우디를 떠나서 서울에 온지 몇달 만에 중앙병원 원장 Dr. Said Rabar가 정식으로 한국 간호원 파견을 요청하러 보건성요원으로 나오고 그뒤 160명이 다시 티야드 중앙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인공신장실(Artificial kidney unit)에서 근무하던 동료들이 너무도 그들과 다르게 완벽하게 성실것 일 했기 때문이었다.

티야드 중앙병원 특실에서 근무하는 선배 언니의 편지를 받고 새삼 사우디가 새롭게 전해왔다. 새 건물로 기숙사를 옮겨서 Open house를 하고 병원 관계자들, 사우디 인사들을 초청하여

성황리에 파티를 연것까지 별일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로 행사 모두 취소를 하라고 해서 신세진 한국분들과 오붓이 지내려던 계획을 실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Open house라는 것이 관습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했다.

관습의 차이, 제한 받는 生活에서의 1년이란 기간은 참으로 길었다.

처음으로 우리들이 겪었던 많은 고충과 고됨 감 즐거웠던 추억들, 작은 보람으로 이어지는 사우디에서의 병원生活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선발대 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 밑에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간호원들이 이런 체험을 쌓게 될 것인지—.

